

▶ 도립미술관, 김정남 '유신포의...' 전

기존 서예 양식 '발칙함'으로 깨부순다



김정남 작가는 글로벌 시대에 예술 분야는 다양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반해 서예는 아직도 전통만을 고집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이제 한국서단도 한국이란 지역을 벗어나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서예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김 작가는 '유신포의' 글로벌 지향적 발칙한 서예정신 전에서 이러한 현실에서 한발 나아가 새롭고 기이하면서, 기존의 틀을 깨는 발칙한 서예정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전통서예가 하나

훈민정음으로 쓴 '송례문' 이탈리아어로 단테의 신곡 일부를 쓴 '피사의 사탑' 등 지역적 한계성 탈피

의 예술로서 자리매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신을 오히려 자기화하고 아울러 동양이란 지역적 한계성을 탈피한다.

전시작 중 훈민정음 서문을 써 완성한 '송례문'과 이탈리아어로 단테의 신곡 일부를 써 형상화한 '피사의 사탑'에서는 문자의 가독성을 유지한 채 문자의 다양한 형상과 외국문자를 운용한 서예를 펼쳐 보인다.

작품은 멀리서 보면 회화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문자가 조합된 서예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서예학) 석사 및 일반대학원(동양미술학) 박사과

정을 졸업하고 문화재청 창경궁소장과 덕수궁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장, 한국서예문화학회 이사,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연북회 회원, 성유동행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08 대한민국 고불서예대전 우수상, 2008 충남·대전 서예전람회 대상, 2009 대한민국 해동서예문인화대전 대상, 2011 국전(대한민국 서예전람회) 대상, 2012 한국추사서예대전 종합대상 등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시는 22~27일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한다. /정해은 기자

'왜 혼불을 읽어야 하는가?'

전주대 장미영 교수 초청 문학특강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 25일 오후 2시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전주대학교 장미영 교수를 초청해 '혼불과 소통하기'를 주제로 문학특강을 연다.



장미영 교수

오랜 기간 문학이 문화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혼불'의 문화적 소통 방식을 연구해 온 장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우리는 왜 혼불을 읽어야 하는가?', '혼불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문학비교학회·한국여성문화학회·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한국여성연구소 등 여러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 교수는 21세기 대중 취향과 미디어, 한국의 노인 담론, 한국의 다문화 코드, 스토리텔링의 이해, 새만금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과 문화산업 등의 저서를 냈다.

최명희문학관 장성수 관장은 "혼불을 넘기면 한민족의 삶과 지혜를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다"면서 "평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이다. /정해은 기자

한국가곡사랑회, 시민과 함께하는 창단연주회

한국가곡사랑회는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수병원 드림홀에서 연주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시민과 함께 함으로서 가곡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창단기념 연주회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승 시인이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 정정숙, 테너 이준권, 테너 김종운, 바리톤 이은필, 첼로 소중연, 사냥송 이진아, 조영민, 반주 최정음이 출연해 자리를 빛낸다.

한국가곡사랑회는 성악 전공자가 아닌 순수한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기회를 놓쳐 성악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동문거리 문화예술단체 협력사업 체계 마련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전주 동문거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단체 협력사업'의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력사업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동문그림가게(시민 작품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문길60 체험마켓 수작수작(빠어난 작품·손으로 만든 작품)과 창작지원센터 정기공연 대안동문만세를 선보인다.

이에 재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공모 과정을 통해 운영단체 나을과 JMCART를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예술가와 함께 동행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문길60 체험마켓 수작수작 프로젝트는 체험·전시·판매가 연계된 것으로 오는 4월 3일 열린다. 청년작가들로 구성된 예술단체 나을은 One-Day 클래스, 공예·전시체합과 함께 동문길60 내에 시민 체험터를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예술단체는 동문길60에 상주하며



전주문화재단이 운영단체 나을과 JMCART를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예술가와 함께 동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문화재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력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주 5일(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오픈한다.

창작지원센터 대안동문만세 프로젝트는 전주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인디밴드 주제의 정기공연이다. 전주시 공연단체인 JMCART는 재단과 협력하여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첫 공연일인 4월 29일에는 사이키델릭

체험마켓 수작수작 등 선보여 운영단체 나을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밴드 노니파이, 락 밴드 전극비불기연합, 합합 밴드 나인이얼스의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프로젝트는 빌리카터, 57, A-FRICA, 웨이스티드자니스, 헤비게이지 등 서울권 공연팀과 클라보 공연을 통해 전주시 대표 뮤지션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역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예술가와 함께 동행 하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3월 말 전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www.jc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여기행이나 기울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전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경관이 절정에 이릅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